축산업계 이해증진과 우의를 다지는 한마당 축제로

▲ 지난 10월 30일 제1회 축산인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한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 골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골프가 이제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축산업계에도 골프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양계인들도 산란계, 육계, 종계 모든 분야에서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그 실력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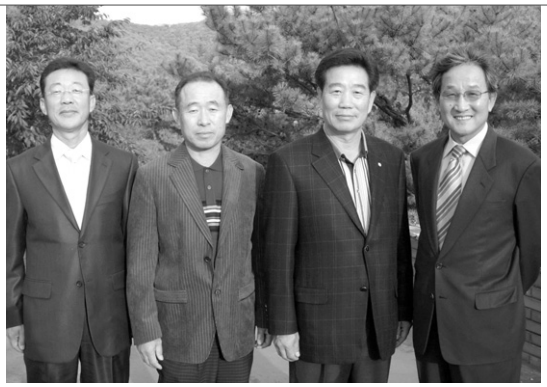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제1회 축산인 골프대회가 한국동물약품협회 주최로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88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7회 한국동물약품협회장배(KAHPA컵) 대회와 함께 열린 이번 축산인 골프대회는 양돈 · 양계 · 사료 · 동물약품 등 축산 각 분야의 대표자 20여명과 축산업계 원로인 김영진 전 농림부 차관보 및 언론사 대표 등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김영진 전 농림부 차관보의 시구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4개 팀(동물약품, 사료, 양계, 양돈)으로 나뉘어 경기가 펼쳐졌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가 82.5의 평균타수로 단체우승을 차지하였고, 개인우승은 양돈대표로 출전한 국민농장의 전흥우 대표가 각각 차지하였다. 양계업계에서는 홍철호 사장이 롱게스트 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 제1회 축산인 골프대회를 유치한 한국동물약품협회 신정재 회장

▲ 김영진 전 차관보의 시구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 양계업계 대표로 참석한 업계인사들(좌부터 홍철호 플러스 푸드 사장, 송원욱 협육농장 대표(양계협회 영주지부), 이언종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장, 한형석 한국계육협회 회장)

▲ 단체 1위를 차지한 동물약품업계(고려비엔피 김진구 사장(좌)이 수상하고 있다.)

▲ 개인 우승은 양돈업계 전흥우 국민농장 대표가 수상하였다.

양계업계에서는 본회 추천을 받아 총 5명이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한재권 조인(주) 회장이 사정상 게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언종 본회 종계분과위원장(부회장), 한형석 한국계육협회 회장, 홍철호 플러스푸드 사장, 송원욱 본회 영주지부 난가정보위원장이 참석하여 4개팀중 85.25의 평균 타수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신정재 동물약품협회 회장은 '지난 KAHPA컵 대회에서 축산인 골프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년 초 개최키로 준비를 했으나 한미 FTA 등 축산업계의 분위기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KAHPA컵과 함께 개최키로 결정했다' 고 전제하고 '이제는 사회 분위기상 골프를 통해 축산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업계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다음대회 때부터는 더 많은 축산단체와 축산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2007년 개최 예정인 제2회 축산인 골프대회는 한국사료협회에서 주최하기로 하였으며, 김정호 사료협회장은 '차기 대회 유치단체장으로서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 이라고 유치인사를 대신하였다.

축산인 골프대회는 축산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업계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